

## 가부장적 갈등과 여성의 여가 경험\*

Korean Women's Perception of Patriarchal Conflicts  
and Leisure Experience

高東佑\*\* · 文相貞\*\*\*

Ko, Dong-Woo · Moon, Sang-Jung

### ABSTRACT

*From a feminist perspectiv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women's perception of patriarchal conflicts and their seeking for psychological meanings in their leisure experience. Based on previous research, two dimensions of patriarchal conflicts(i.e., situational conflict and cultural conflict) and four different meanings of leisure experience(i.e., escaping, deviation from norm, resistance, & harmonizing) were measured and interrelated. Data were collected nation wide from 1059 Korean women. Results showed that the situational conflict made different effects on the four different types of leisure experience, while the cultural conflict mad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ll four dependent variables. The moderating effects of demographic variables on the relationship were also explored. Result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the situational conflict might lead to some aggressive leisure experience among Korean women.*

**핵심용어(Key words) :** 여성여가(Women's leisure),  
가부장적 갈등(Patriarchal conflicts),  
여가경험(Leisure experience),  
해방감(Escaping),  
저항(Resistance),  
규범일탈(Deviation of norms),  
조화추구(Harmonizing)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21-B00267)

\*\* 대구대학교 호텔관광학과 부교수. e-mail: dwko@daegu.ac.kr

\*\*\* 대구대학교 강사, 관광경영학 박사. e-mail: msj2983@hanmail.net

## I. 서 론

'자유는 무죄다'라는 말처럼 자유 의지와 경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추구 차원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자유를 가장 핵심적인 심리 차원으로 포함하는 개념 혹은 현상인 '여가경험'은 현대인의 가장 익숙한 생활의 차원이 된다. 현대사회를 여가문화사회로 정의하는 입장은 이런 점에서 일리가 있다. 나아가 여가현상이야말로 문화와 개인의 심리적 본질을 가장 잘 대변하는 주제가 된다고 보는 관점도 빈번하게 대두되고 있다(고동우, 2007; Csikszentmihalyi, 1990; Iso-Ahoal, 1980; Kelly, 1996; Mannell & Kleiber, 1997; Nuelinger, 1974, 1981). 여가 현상이 가지는 학문적 가치는 곧 여가권리라는 행위적 가치의 문제일 뿐 아니라 여가서비스 산업이라는 경제적 가치와도 연결된다. 이런 논리는 곧 여가현상을 심리학, 문화학,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전통적인 노동제도의 틀 속에서 무시되고 제한되었던 여성의 인권 문제가 여가 현상의 틀 속에서 새롭게 탐구되고 있다(Aitchison, 2003; Henderson, Bialeschki, Shaw, & Freysinger, 1989; Parry, 2005; Shaw, 1985). 즉 여성의 여가 행동은 단순히 노동의 부산물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이고, 정체성 추구 행위이며, 능동적 소비 행위로서 남녀평등의 이슈 속에서 조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사실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는 성역할(sex role)이라는 사회문화적 개념이 팽배하여 여성의 사회적 행위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제약이 강했던 게 사실이다. 여성의 여가 활동은 아직도 남성의 그것에 비해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여성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가활동(가령, 오토바이, 암벽등반, 탐험, 격투기 등)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하는 여성인구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에 대한 지배적인 사회적 시각은 불편한 면이 있다. 이들의 관심은 일종의 호기심 이상이 아니며, 비하의 관점이나 혹은 협박의 암시를 내포하기도 한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이 지나친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비하되기까지 한다는 사실은 역으로 여성의 여가행동이야말로 남성들을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일종의 저항이며 반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실제로 현대 여성의 여가활동은 종종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특히 가부장적 전통 사회의 출산이데올로기

(pronatalism)에 대한 저항의 수단이 된다는 질적 연구도 있다(즉, Parry, 2005).

그러므로 현대 여성들은 여가 활동을 통하여 가부장적 문화를 탈출하고자 하고, 거기에 저항하고 반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논리를 끌어낼 수 있다. 즉, 가부장적 갈등의 경험은 여성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반발의 의미를 지닌 여가활동을 추구하게 유도할 것이다. 이런 가정은 오랫동안 여성여가학자들의 연구 주제에 포함되었으나, 대부분 이론적 논의나 질적 자료에 대한 내용분석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가부장적 사회 갈등과 그로인해 야기되는 여가경험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사회 갈등과 여가경험의 의미 차원이 가지는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가부장적 갈등은 어떤 심리적 차원의 여가 경험과 관련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여성이 지각하는 여가의 의미

행위자 입장을 고려하는 여가심리학의 관점에서 여가의 의미는 스스로 선택하고(즉, 지각된 자유감), 체험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내재적 동기를 가정한다(고동우, 2007; Iso-Ahola, 1980; Neulinger, 1981).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 결정의 결과이며 그래서 일종의 자유감을 반영한다. 여가 경험이 자유의지의 소산이라는 점 때문에, 그것이 여가 정체성이나 자기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여가 경험이 특히 여성에게 독특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 같다. 실제로 여성의 여가 행동을 탐구하였던 많은 연구들은 전통적인 여가학자들이 주장해온 해방감이나 사회교류, 자기표현과 향상감, 몰입 등의 심리적 차원들 외에도 여성들에게는 기존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에 대한 탈출이나 저항과 같은 의미의 여가 경험이 특별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산업사회 혹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가활동의 기회는 주로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계층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Henderson 등, 1989), 탈출과 저항의 의미로서 여성의 여가현상은 여성 문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성의 여가 경험이 탈출과 저항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존재였고, 여성의 여가 권리가 제약받아왔음을 반영

한다(Aitchison, 2003; Henderson, 1983; Henderson & Bialeschki, 1991; Shaw, 1985, 1994, 2001). 구체적으로 Aitchison(2003)은 여성의 여가현상을 다루면서 여성에게 여가는 단지 제한된 공간 혹은 은유 공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여가권리의 제약이 여성으로 하여금 어떤 여가를 하게 유도하는지, 그리고 그런 여가 경험이 여성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탐구한 사례들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여가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는 여성과 남성의 성차를 다룬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연구들은 여가활동 유형, 여가시간, 여가비용 등 여가 경험의 조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남녀간 성차가 있음을 보여주었다(김사현, 1997; 정민영, 2001). 더 나아가, 여가활동 유형에서 성차가 나타나는 이유를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찾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문숙재·윤소영·차경옥·천혜정, 2005. p.157). 예를 들어 여성의 여가 시간과 여가 비용이 남성의 그것보다 더 적은 현상을 확인한 문숙재 등(2005)은 그 이유가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여성에게 있어서 여가 기회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진 성역할(즉, 가족봉사 생활)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문숙재 등, 2005. p.159; Shaw, 1985). 이 연구들은 여성의 여가경험이나 의미가 남성의 여가와 달리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나아가서 지난 1980년대에 이르러 서구에서는 여가의 의미에 대한 일반적인 탐구(Gunter & Gunter, 1980; Samdahl, 1988)와 더불어 일상 생활에서 여성이 지각하는 여가의 의미 혹은 개념에 대한 연구가 심리적 경험 차원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예를 들어, Bialeschki & Henderson, 1986; Shaw, 1985). 여성여가의 이슈를 다룬 연구들은 여성이 지각하는 여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이나 심층면접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지각된 자유감'과 '즐거움'(enjoyment)을 결정적인 여가 경험의 차원으로 정리하였다는 공통점도 있다. 물론 지각된 자유감이나 즐거움이 여가 경험의 전부는 아니다. 이들 외에도 이완 혹은 편안함(relaxation: Shaw, 1985), 내재적 동기(Shaw, 1985), 몰입감(Gunter & Gunter, 1980), 일상탈출의 느낌(Gunter & Gunter, 1980), 자기표현(Samdahl, 1988) 등이 각각 중요한 여가 경험 차원으로 도출되었다. 즉, 자기결정, 자기향상의 즐거움, 자기 표현, 사회 교류, 자연교류의 욕구 충족 속에 이러한 의미들은 모두 포함되며, 보통의 남성들이 지각하는 여가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즉, Henderson 등, 1989: 59-60).

그러나 동일한 심리적 차원의 경험을 지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는 남자와 여자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동일하게 지각된 자유감을 지각하더라도 남자는 단순히 자유로움의 의미를 갖지만 여자는 그것이 일탈이며 저항할 수도 있다. 사실 여성 여가학자들은 이런 논리에 동의하며, 지난 10여년간 여성에게 있어서 여가의 의미가 일종의 저항의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Auster, 2001; Freysinger & Flannary, 1992; Green, 1998; Harrington Dawson, & Bolla, 1992; Parry, 2005; Shaw, 2001; Wearing, 1990; Wearing, 1995; Wearing, Wearing, & Kelly, 1994). 이 때 저항의 대상은 가부장적 사회문화 혹은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로 간주된다.

이데올로기 자체는 언제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Shaw(2001)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데올로기는 사회의 모순과 반목으로 이루어진 권력 구조에 대한 투쟁을 하는데 강력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역으로 권력 불평등을 자연스럽고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p.188)”. 이데올로기는 사회의 기존 부조리에 대한 저항의 수단이라는 순기능과 동시에 그것 자체가 사회 불평등을 유지 강화시키는 역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항과 척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권리와 관련하여 특히 가부장적 사회 문화 혹은 이데올로기는 전통적으로 늘 주목을 받아왔다. Parry(2005)와 Shaw(2001)는 여가행동에 초점을 두어, 여성 개인이나 여성 집단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행동과 문화는 가부장적 사회의 불평등한 권력 배분에 스며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 행위로서 일종의 저항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여가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사실 거의 모든 여가활동이 본질적으로 자기 결정과 자기표현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Shaw, 2001, p.189).

여가 경험을 통한 저항(resistance)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Shaw(2001)는 사회학적 수준에서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결론을 제공하였다. 첫째 구조주의적 입장(structuralist position), 둘째 후기 구조주의(post-structuralist) 혹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관점, 셋째는 상호작용주의자(interactionist)의 입장이다. 이들 관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생략한다. 다만 Shaw(2001)는 어떤 관점이든 여가 행동을 통하여 권력감(a sense of empowerment)을 얻고자 한다는 점에서 저항으로서의 여가 의미는 공통점이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여가 경험이 저항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권력

감의 획득만을 추구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다. 여성에게 있어서 여가 행동이 권력을 위한 투쟁이라면 모든 여성은 투사여야 하지만, 실제 여가 경험은 단지 존재감을 확인하는 수준이거나 혹은 골치 아픈 모든 것을 잠시 잊어버리는 해방의 경험(palliative experience)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권력감의 추구로 이름 붙이기 힘든 저항의 여가 의미는 다양하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Auster (2001)는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오토바이 같은 여가활동에 여성이 참여하는 현상을 보고, 이를 여가 제약(leisure constraint)의 극복이라는 유능감과 나아가 성고정관념에 대한 저항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장하는 경험을 수반한다고 해석하였다. 또 Green(1998)은 여성들끼리의 우정(즉, 사회교류)조차도 성역할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남자를 끼워주지 않으면서 여성들만으로 어떤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특히 여성 전용(women-only)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여성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저항의 수단이며 새로운 성정체성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유머(humor)를 사용한다고 한다(Green, 1998, 181).

그러므로 다양한 여가 경험의 심리적 차원들은 각각 여성에게 있어서 저항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에 이르는 자기 결정감, 자신의 능력이나 정체성의 확장을 의미하는 자기 향상감, 외모/능력/지위/가치관의 자기표현감, 우정이나 성은 물론 모든 친교행위를 포함하는 사회적 교류감, 그리고 야외 활동의 핵심 요소인 자연 교류의 경험은 여성들이 저항의 의미를 동반하는 차원들일 수 있다.

## 2. 가부장적 갈등과 여성 여가의 의미: 사례연구

한편 최근의 연구에서 고통우·홍경완·문상정·오송대(2010)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현대 여성들이 수행하는 여가행동의 이유가 과연 가부장적 사회문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항의 양식으로 나타나는 여가 경험의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 선행 연구의 결과를 요약 고찰함으로써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여대생을 비롯하여 미혼에서 40대 기혼여성에 이르는 21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친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수집한 질적 자료를 내용 분석한 이 연구는 여성의 여가 경험이 어떤 심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여성 여가의 원인으로 가부장적 문화갈등이 논리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들은 예상했던 것처럼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경험'으로 정의할 수 있는 가부장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인간관계의 맥락에 있는 이성친구나 남편 등 이성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되는 상처를 지각할 때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여가 경험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부장적 갈등 경험은 구체적인 이성친구나 남편과의 갈등을 포함하며, 더 포괄적으로는 전반적인 가부장적 사회문화(제도, 분위기 등) 때문에 여성이 무시당하거나 상처를 입는 경우도 포함된다. 개념적으로 구체화하면 가부장적 갈등 중 전자는 사건갈등으로, 그리고 후자는 문화갈등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런 갈등을 지각하는 여성의 경우, 여가기회는 일종의 돌파구가 된다.

둘째, 돌파구로서 추구되는 여성의 여가 경험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 범주로 구분된다. 일상탈출(해방감, 규범일탈), 저항(묵시적 저항, 명시적 저항), 그리고 이상적 여가(갈등해결을 위한 조화로운 여가 경험) 등이 그것이다. 일상탈출은 전통적으로 여가 경험의 심리적 차원으로 고려되었던 개념인데, 여성의 여가 경험에서 일상탈출은 다시 사회규범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해방감의 차원과 규범을 벗어나서 이뤄지는 일탈감의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간단히 해방감과 규범일탈로 명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저항은 일종의 복수심을 포함하는 여가 경험이며, 갈등의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복수심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느냐 혹은 아니냐에 따라 명시적 저항과 묵시적 저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차원인 이상적 여가는 갈등이 생겼을 때 복수나 탈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여 관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식의 여가 경험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결론은 가부장적 갈등 경험으로 인하여 추구하는 여가 경험의 의미가 최소한 5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의 여가경험을 다르게 추구하는지의 여부는 여성 개인의 특성 즉, 성격이나 습관 혹은 다른 인구 특성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의미의 여가경험을 추구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행하는 여가활동의 유형도 달라진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현대 한국 여성들의 가부장적 갈등과 그것의 해결방안으로서 추구되는 여가경험의 의미 유형 사이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성들이 지각하는 가부장적 갈등경험(즉, 사건갈등과 문화갈등)

이 해방감 추구의 여가 경험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2] 여성들이 지각하는 가부장적 갈등 경험이 규범일탈의 여가경험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3] 여성들이 지각하는 가부장적 갈등 경험이 묵시적 저항의 여가경험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4] 여성들이 지각하는 가부장적 갈등 경험이 명시적 저항의 여가경험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5] 여성들이 지각하는 가부장적 갈등 경험이 갈등해결을 위한 조화 추구의 여가경험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여성들이 지각하는 두 가지 가부장적 갈등이 각각 4가지 다른 의미의 여가경험에 관련되는 정도는 사실 개인의 처한 입장과 특성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쉽게 생각하여 미혼여성과 기혼여성, 혹은 직업유무와 같은 변수들은 갈등과 여가경험의 의미 사이를 결정하거나 조절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부장적 갈등의 심각성 자체가 개인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지 추가분석의 일환으로서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요 인구통계변수의 각 수준별로 두 가지 가부장적 갈등과 네 가지 여가경험의 의미 변수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 III. 연구 방법

####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가부장적 갈등] 독립변수인 가부장적 갈등의 개념은 여성이 남성이나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로 인해 겪게 되는 심리적 상처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이성과의 구체적인 사건 때문에 겪는 '사건갈등'과 불특정 다수의 이성이 가진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 때문에 겪는 '문화갈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가부장적 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동우 등(2010)에서 분석한 갈등 사례를 근거로 탐색적인 수준에서 15개의 문항을 작성하였다(리커트형 7점 척도).

[여가경험의 의미] 종속변수인 여가경험의 의미는 여성이 가부장적 갈등을 겪

은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심리적 가치로 조작적 정의하였으며, 고동우 등(2010)의 결과를 근거로 개념적인 수준에서 5종류의 하위 차원을 포함하였다. 각각 해방감, 규범일탈, 명시적 저항, 묵시적 저항 그리고 갈등해결의 조화 등이 그것이다. 선행연구의 내용 분석 사례를 근거로 각 차원별로 5개 문항을 구성하여 총 25개 문항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형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 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가경험의 의미는 가정했던 것처럼 5개 요인구조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특히 묵시적 저항과 명시적 저항은 개념적 구분과 달리 하나의 심리적 차원으로 정리되었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인구통계특성] 인구통계특성으로 나이, 결혼여부, 학력수준, 가정 월소득, 그리고 직업유형을 고려하였다. 각 특성별 측정 수준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 2. 조사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사실 여성의 여가 경험 특징을 전반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대형 연구 과제의 일부이다. 그래서 상기한 변수들 외에도 여성의 여가 경험에 관련되는 다양한 다른 변수들을 함께 조사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초점을 위하여 다른 변수들은 분석에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지를 사용한 개별면접법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은 전국을 망라한 지역할당비례표집법을 적용하여 1059명의 성인여성(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09년 3월~4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수집한 자료는 SPSS 15.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되었고, 빈도분석,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우선 인구특성별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은 조사표본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연령 범위는 19~71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34.45세(sd=10.32세)였다. 연령대별 분포는 젊을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알려주고 있다. 거주지별 분포 역

시 전국 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 분포, 결혼여부, 자녀수 형태, 학력, 월소득 수준 등의 기술통계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N=1059)

변수	수준	빈도	백분율	변수	수준	빈도	백분율
결혼 여부	미혼	494	46.6	지역별	중소도시	285	26.9
	기혼	530	50.0		읍면지역	58	5.5
	이혼/별거/	35	3.3		대도시	716	67.6
연령	19세-24세	208	19.6	가정월 소득	100만원미만	73	6.9
	25세-29세	212	20.0		100-199만원	171	16.1
	30세-34세	163	15.4	200-299만원	222	21.0	
	35세-39세	134	12.7	300-399만원	212	20.0	
	40세-44세	149	14.1	400-499만원	180	17.0	
	45세-49세	85	8.0	500-599만원	100	6.4	
	50세 이상	108	10.2	600-699만원	30	2.8	
				700만원이상	71	6.7	
자녀	있다	66	6.2	학력	고등학교	346	32.7
	1명	154	14.5		전문대졸	218	20.6
	2명	294	27.8		4년제대졸	244	41.9
	3명이상	51	4.8		대학원이상	51	4.8
	미혼	494	46.6				
직업	자영업	40	3.8	직업	연구/교육	56	5.3
	공무원	26	2.5		전업주부	291	27.5
	사무/관리	351	33.1		학생	138	13.0
	생산직	6	0.6		무직	33	3.1
	서비스직	72	6.8		기타	46	4.3
거주지	서울	383	36.2	거주지	강원	20	1.9
	부산	104	9.8		충북	26	2.5
	대구	70	6.6		충남	24	2.3
	광주	42	4.0		경북	16	1.5
	대전	50	4.7		경남	33	3.1
	인천	49	4.6		전북	21	2.0
	울산	18	1.7		전남	14	1.3
	경기	181	17.1		제주	8	0.8

## 2. 가부장적 갈등과 여가경험 의미 측정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의 핵심변수인 가부장적 갈등과 여가경험의 의미를 측정하는 도구가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들 변수는 탐색적인 수준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우선

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가정했던 차원들로 구분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부장적 갈등은 15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이에 대한 주축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1개 문항의 구조적 분할이 모호하였다. 이를 제외하고 다시 분석한 결과, 예상했던 것처럼 두 개 요인으로 구분되었고, 각각 사건갈등과 문화갈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가부장적 갈등에 대한 14개 문항의 주축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더불어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각각 .923(사건갈등), .856(문화갈등)으로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보였다.

<표 2> 가부장적 갈등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문항 번호	설문 내용	사건 갈등	문화 갈등	$h^2$	$\alpha$
문6.내 남자친구나 남편은 지나친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다		.834		.792	.923
문5.내 남자친구나 남편은 여자를 배려할 줄 모른다		.803		.734	
문8.내 남자친구나 남편은 제멋대로 행동한다		.789		.761	
문3.나의 남자친구나 남편은 종종 가부장적이다		.677		.603	
문4.내 남자친구나 남편은 남자들의 세상을 즐긴다		.674		.587	
문9.내 남자친구나 남편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		.671	.447	.651	
문7.남자들의 특유의 문화 때문에 상처를 받곤 한다		.649	.514	.685	
문1.나는 종종 남편이나 남자 친구와 다툰다		.428		.275	
문15.남성 중심의 생활을 벗어나고 싶을 때 있다			.828	.765	
문14.남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다			.756	.730	
문10.우리나라 여자들은 너무 불쌍하다는 느낌이 든다			.639	.498	
문2.이 사회는 지나치게 남성중심 사회라고 생각한다			.550	.393	
문12.남자로부터 무시당한 적이 있다			.550	.390	
문13.우리 집은 남성 중심의 집안 문화를 가지고 있다			.521	.404	
고유근		4.56	3.70		
누적설명량(%)		32.62	26.43	59.06	

주: KMO=.941(p<.000), 주축요인분석, Varimax 회전방식

여가경험의 의미 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고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였다. 초기 5개 요인으로 가정하여 구성한 25개 문항에 대한 주축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예상과 달리 하나의 요인이 확인 되지 않았다. 저항의 차원으로 가정하였던 '묵시적 저항'과 '명시적 저항'은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되어 묶였고, 규범일탈에 해당되는 일부 문항들 역시 저항 차원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항의 두 개 차원을 묶어서 하나의 요인으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규범일탈 차원으로 가정하였지만 저항의 차

원으로 구조화된 3개 문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나아가 저항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 수가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점을 고려하여, 다른 요인과의 균형을 위해 문항들을 요인 부하량이 큰 순서대로 정리하여 6개 문항으로 축소하였다. 결국, 25개 문항 중 18개의 문항을 최종 활용하였으며, 이들 문항의 요인은 4개로 정리하였다. 각 요인은 저항, 해방감, 갈등해결을 위한 조화, 규범일탈 등으로 명명하였다(〈표 3〉). 한편 여가경험의 의미라는 개념은 하위 차원의 수준에서 변수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각각 4개 차원별로 내적합치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4개 요인별 내적합치도는 모두 .80 이상으로 비교적 안정된 수준이었다(〈표 3〉).

〈표 3〉 여가경험의미 척도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문항	설문 내용	저항	해방감	조화 추구	규범 일탈	$h^2$	$\alpha$
문20.나의 일탈행동에 복수심이 있다		.860				.748	.913
문16.나의 여가행동은 다소 반항적이다		.792				.676	
문15.내 여가행동은 저항의 의미가 있다		.792				.666	
문19.이성에게 받은 상처를 되갚고 싶어서 놀 때가 있다		.785				.641	
문17.이성에 대한 복수로 밤늦게까지 놀아 본 적 있다.		.768				.607	
문11.여가행동을 통하여 복수심을 불태운 적이 있다		.715				.554	
문2.일상을 벗어나는 것이 즐거움이다			.818			.703	.870
문4.여가활동 할 때 집안문제를 잊는다			.816			.689	
문3.여가활동 할 때 해방감을 느낀다			.810			.700	
문1.현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싶다			.748			.594	
문5.사회규범 내에서 여가생활을 한다			.543			.316	
문22.이성과 같등시 우리는 데이트를 한다				.841		.729	.832
문21.이성과 같등시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다				.758		.579	
문23.이성과 같등시 여행을 한다				.735		.569	
문25.이성과 같등시 나는 반성한다				.658		.449	
문24.이성과 같등시 나는 사색을 한다				.522		.336	
문7.다소 규범에 벗어나더라도 여가경험은 짜릿한 게 좋다					.841	.901	.811
문6.나는 일탈행동을 하는 친구를 이해할 수 있다					.544	.495	
고유값		4.02	3.11	2.59	1.22		
누적설명량(%)		22.33	17.31	14.3 9	6.80	60.85	

주: KMO=.8439(p<.000), 주축요인분석, Varimax 회전방식

### 3. 측정변수의 인구통계특성별 기술통계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에 앞서, 여성응답자의 인구통계특성 수준에 따라 각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기술 통계를 확인하였다. 인구 통계특성별 수준에 따라 가부장적 갈등의 지각 수준이 동일한지를 알 수 있고, 또한 그것의 대처 방안으로서 여가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의 절차는 여성의 여가현상을 이해하는데 의미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석량이 많고 복잡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록에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일부 인구통계특성에서는 수준별 차이가 없었으나, 다른 특성에서는 수준별로 두 가지 변수의 측정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인구통계변수를 두 변수 사이의 조절변수로 고려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 4. 여가경험의 의미추구에 대한 가부장적 갈등의 영향력 분석

한편 4가지 종속변수에 대한 두 가지 독립변수(즉, 사건갈등과 문화갈등)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를 보면, 해방감의 여가 경험에 대하여 문화갈등이 정적으로 유의한 예언력을 보이고 있으나 사건갈등은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한국여성들이 여가경험을 통하여 추구하는 해방감의 수준은 가부장적 문화갈등을 겪을수록 강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간관계 수준에서 발생하는 가부장적 사건갈등은 여성들이 추구하는 해방감의 여가 경험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해방감보다는 더 적극적인 반발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규범일탈과 저항의 여가 경험은 공통적으로 사건갈등과 문화갈등 변수 둘 다 유의한 예언력을 보이고 있다. 가부장적 사건갈등과 문화갈등은 각각 독립적으로 여성들의 일탈 여가행동과 남성 및 남성 문화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여가 경험을 추구하게 유도하는 유의한 예언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여성들이 가부장적 사건갈등이나 문화갈등을 겪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여가를 통한 일탈을 하거나 저항경험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갈등 해결의 방안으로 간주되는 조화추구의 여가 경험에 대한 두 가지 갈등의 예언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향의 방향 면에서 두 가지 독립변수의 예언은 상호 모순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즉, 가부장적 사

건갈등은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인 조화추구의 여가 경험을 오히려 회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반면, 문화갈등의 경험은 그 갈등을 적극적이고 이상적으로 해결하려는 조화추구의 여가경험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정리하면, 가부장적 문화갈등의 수준은 여성들이 여가 경험을 통하여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반면, 구체적인 사건갈등의 영향은 4가지 여가 경험의 차원에 대하여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남성문화나 남성에 대한 적극적인 반발 행위를 의미할 수 있는 일탈경험과 저항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은 가부장적 사건갈등을 겪을수록 강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동시에 용서와 화해를 의미하는 조화추구의 여가경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으나, 비교적 중립적인 가치인 해방감의 여가 경험은 사건갈등의 수준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표 4〉 여가경험의 의미추구에 대한 가부장적 갈등의 다중회귀 분석(전체, n=1059)

종속변수	독립변수(표준화회귀계수)		수정된 R <sup>2</sup>
	사건갈등	문화갈등	
해방감	.053	.243***	.081***
규범일탈	.104**	.232***	.101***
저항	.343***	.176***	.240***
조화추구	-.117**	.133***	.007***

주: enter 방식, \*\*, p<.01, \*\*\*, p<.001

한편, 〈표 4〉의 결과에서 문화갈등의 예언력이 4가지 여가경험에 대하여 일관되게 정적인 방향에서 유의한 반면, 사건갈등의 예언력은 4가지 종속변수별로 다소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사실은 여성의 개인 특성에 의해 그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준다. 즉, 여성들이 지닌 개인 특성이 일종의 조절변수가 되어 사건갈등과 여가경험 차원의 영향 관계를 중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5. 추가 분석: 인구통계변수별 회귀분석 결과

인구통계 변수들의 조절 효과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여성 표본의 다양한 인구 통계적 변수의 여러 수준별로 4가지 종속변수(즉, 여가 경험)에 대한 두 가지 독립변수(즉, 갈등)의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수행하였다. 인구통계 변수별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양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중요한 패턴만 정리한다. 단지 향후 연구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었음을 밝혀둔다.

우선 이미 언급한 것처럼, 문화갈등이 4가지 여가 경험의 추구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모든 조건에서 유의하였다. 즉, 대체적으로 여성들은 개인적인 인구통계적 수준에 관계없이 문화갈등을 겪을수록 해방감, 일탈감, 저항 및 조화추구의 여가경험을 추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사건갈등이 4가지 여가경험 변수에 영향을 주는 패턴은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예컨대, 사건갈등이 해방감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한 조건은 연구/교육직 종사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문화갈등을 해방감의 여가 경험으로 이어가는 여성들은 거의 모든 표본이었으나, 다만 생산직, 연구교육직 및 무직 등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사건갈등과 일탈여가 경험의 관계는 특히 30대 후반 연령대, 1명 이하의 자녀수, 4년제 대졸이상 학력소유자에서 유의하게 강했으며, 다른 조건에서는 그 관계가 약하거나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문화갈등과 규범일탈 여가경험 사이의 관계는 거의 모든 조건에서 유의하였고, 단지 몇 가지 조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사건갈등이 저항의 여가경험을 예언하는 정도 역시 인구통계적 특성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거의 모든 조건에서 유의하였다. 단, 자영업자의 경우 그 관계성이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저항의 여가 경험에 대한 가부장적 문화갈등의 영향력 역시 대부분의 조건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나, 예외적으로 20대 후반, 읍면지역 거주자, 자녀가 1명인 경우, 그리고 서비스직, 연구/교육직, 전업주부, 학생 등의 직업군에서는 그 관계성의 크기가 낮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조화추구의 여가 경험에 대한 사건갈등과 문화갈등의 예언구조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인구 통계적 변수에 따라 크게 달랐다. 조화추구에 대한 사건갈등의 예언 구조는 특히 40대 이상, 자녀있는 기혼 여성, 4년제 대졸이상자, 월소득 200만원 이상의 가정(600만원대 제외), 그리고 자영업, 공무원, 사무/관리직, 전업주부 등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이들 조건에서는 사건갈등이 클수록 여가활동을 통한 조화 추구 경험을 억제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생산직, 서비스직, 무직자들은 사건갈등을 겪을수록 오히려 그 갈등을 해결하고 조화를 추구하는 방식의 여가경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부장적 문화 갈등과 조화추구 여가경험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정적이었으나, 20대초, 30대초, 40대초, 중소도시 거주자, 월소득 100만원 미만, 500만원대의 조건, 생산직, 서비스직, 연구/교육직, 전업주부, 학생의 경우에는 그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이들은 문화적 수준에서 가부장적 갈등을 겪게 된다고 해도 여가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화 추구 행동을 하지 않은 것

으로 볼 수 있다. 역으로, 나머지 다른 대부분의 조건에 해당되는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문화갈등을 겪을수록 여가활동을 통한 조화 경험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가부장적 갈등과 여가경험의 유의 관계를 반영하는 인구통계적 특성(n=1059)

가부장적 갈등	여가 경험	연령대	거주지	결혼 여부	자녀수	학력	월소득	직업
사건 갈등	해방감	-	-	-	-	-	-	연구/교육
	규범 일탈	25-29세	-	모든 조건	(2명외) 전체	4년제 대졸	- 100만원, 600만-699만	사무/관리, 연구/교육
	저항	35-39세	-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자영 외) 전체
	조화 추구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100만미만 (200-599만, 700만이상)*	(생산,서비스, 무직) (자영업,공무원, 사무관리,주부)*
문화 갈등	해방감	40 이상*	읍면*	기혼*	1명 이상*	4년 이상*	100만미만 (200-599만, 700만이상)*	(생산,서비스, 무직) (자영업,공무원, 사무관리,주부)*
	규범 일탈	전체	읍면 대도시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생산,연구/교육 외)전체
	저항	전체	전체	전체	(1명외) 전체	전체	(600만원대 외) 전체	(생산, 서비스, 연구/교육 외) 전체
	조화 추구	(20대후반 외) 전체	중소 도시 대도시	전체	1명의 전체	전체	(500만원대 외) 전체	(서비스, 주부, 연구/교육, 학생 외) 전체
	20대후반, 30대후반, 40대후반 이상	읍면 대도시	전체	전체	전체	100-199만, 300-499만, 600만이상	(생산, 서비스, 연구/교육, 주부, 학생 외) 전체	

주: \* 조건은 표준화회귀계수가 역(-)방향으로 유의한 조건임.  
표준화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14(설명량 2%)이상인 경우만 포함. 인구통계변수의 조건별 사례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이 되는 회귀계수의 객관적 수준을 정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여기서는 연구자의 편의상 설명량 2%를 설정하였음을 밝혀둔다.

## V. 결 론

자발적 인간 행동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여가활동은 여성들이 어떤 가부장적 사건이나 문화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겪을 때 그런 갈등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기회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여성에게 있어서 가부장적 갈등은 개별적으로 추구하는 여가경험의 심리적 차원을 유발하는 잠재적인 예언변수라고 가

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겪는 가부장적 갈등 경험이 여가활동의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가부장적 갈등을 최소한 사건갈등과 문화갈등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여가경험은 해방감, 규범일탈, 묵시적 저항, 명시적 저항, 갈등회복(조화) 등 5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다만,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양적 구조를 분석한 결과 묵시적 저항과 명시적 저항은 구조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후속 절차에서는 '저항' 경험이라는 하나의 차원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전국 성인여성의 여가 특성을 대변하기 위하여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지역할당비례표집법으로 19세 이상 성인 여성 1,059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단히 해석하면,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여성들이 겪는 가부장적 갈등이 사건갈등과 문화갈등이라는 두가지 차원 구조로 구분된다는 사실이다. 전자가 구체적인 상대(즉, 남편, 남자친구, 직장상사 등)로 인한 개인적인 사건 경험을 반영하는 가부장적 갈등이라면, 후자는 사회의 체계나 조직 문화 혹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불편한 심리적 갈등을 반영한다. 이러한 개념적 구분이 계량적인 구조를 가진 두 개의 요인으로 확인된다는 사실은 실제로 여성들은 이 사회에서 겪는 가부장적 갈등이 구체적인 사건갈등과 좀 더 거시적인 문화갈등으로 구분하여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여가활동을 통하여 추구하는 심리적 가치인 의미추구의 내용에 대하여 질적 자료를 내용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해방감, 규범일탈, 묵시적 저항, 명시적 저항, 그리고 조화추구 등 5차원으로 구분하였으나, 양적 자료를 근거로 요인 분석한 결과 묵시적 저항과 명시적 저항은 구조적으로 하나의 차원으로 묶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저항의 의미를 가지고 여가경험을 할 때, 저항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드러내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부장적 상대나 혹은 사회적 다수가 여성 자신의 저항적 여가 행동을 알아차리든 혹은 아니든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본 연구의 후속 과정에서는 저항의 여가 경험과 관련된 연구문제3과 4를 하나의 문제로 묶어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 <표 4>, <표 5>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1]의 경우, 가부장적 갈등경험과 해방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두 가지 가부장적 갈등 경험 중 사건갈등은 해방감과 관련이 없는 반면, 문화 갈등은 유의한 예언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러 인구통계 변수를 조절변수로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교육직 종사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건갈등을 겪을수록 여가활동을 통하여 해방감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갈등은 일부 예외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조건에서 해방감에 대한 유의한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이런 결과는 가부장적 사건갈등에 비해 가부장적 문화갈등이 보편적일 수 있음을 말해주며, 제도와 문화라는 거시적이며 추상적인 수준에 겪는 갈등은 종종 여성개인의 입장에서 대응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가활동의 기회에서 해방감의 추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사건갈등이 해방감 추구와 관련된 정도가 전문직인 연구/교육직 종사자에게서만 유의하다는 사실은 해방감의 경험은 사건갈등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즉, 문화갈등에 비해 사건갈등을 겪을 경우 그 상처의 깊이가 더 클 것이라고 가정하면, 여가활동에서의 해방감 지각 정도로는 그 상처를 해결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지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연구/교육직 종사자의 경우 더 세련된 인지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할 때 해방감의 여가 경험만으로도 개인적인 상처를 치유하거나 해결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준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한 결과 역시 일반적으로 사건갈등보다는 문화갈등이 규범일탈에 대한 더 큰 예언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사건갈등도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긴 했으나 그 수준은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인구통계적 변수를 고려한 결과, 문화갈등과 규범일탈의 유의적 관계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건갈등과 규범일탈의 관계는 특히 30대 후반, 1명 이하의 자녀수,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 그리고 생산직 및 연구교육직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사실은 가부장적 문화갈등이 여성으로 하여금 규범일탈의 여가경험을 추구하게 만드는 기제가 보편적이며, 특히 자생적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여성들의 경우 가부장적 사건갈등을 겪게 되면 그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는 규범일탈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저항의 여가 경험을 의미하는 [연구문제 3과 4]의 경우는 하나의 맥락으로 분석하였고, 문화갈등에 비하여 사건갈등의 예언력이 더 두드러지며 보편적인 특징이 확인되었다. 반면 문화갈등이 저항의 여가경험을 예언하는 정도는 설명력은 자녀가 없거나 2명 이상일 때, 40대 후반 이상, 그리고 자영업의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갈등이 원인과 상대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개인적인 상처라는 점에서 저항의 가치를 지닌 적극적인 여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연계는 보편적일 수 있음을 알려준다. 반면 다소 추상적인 상처인 문화갈등의 경우 남성중심의 가정과 사회를 위하여 정신적, 신체적, 경제

적으로 더 오랫동안 더 많이 공헌했거나 희생했을 가능성이 큰 조건(즉, 자녀수 2명 이상, 40대 후반 이상, 자영업)에서 저항의 여가경험을 더 강하게 예언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5]와 관련된 조화추구의 여가 경험에 대해선 두 가지 갈등 차원이 상반되는 방향의 예언구조를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가부장적 사건갈등이 클수록 조화지향의 여가경험을 추구하지 않거나 오히려 억제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패턴은 반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다른 종류의 여가경험, 즉 해방감 추구, 규범일탈, 저항 등의 차원에 대한 예언과 일관된 경향을 지닌다. 독특한 현상은 문화갈등과 조화지향의 여가 경험 사이에서 발견된다. 앞선 다른 차원의 여가경험을 고려하면, 문화갈등의 예언구조 역시 사건갈등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야 하겠지만, 오히려 문화갈등과 조화추구의 여가 경험은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다. 이런 경향은 특히 자녀가 없거나 3명 이상, 300-499만원 소득자, 자영업자나 공무원 또는 무직자들은 문화갈등을 겪을수록 오히려 그 갈등을 해결하려는 조화 지향의 여가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문화갈등은 사건갈등과 비교할 때 사소하거나 혹은 극복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될 수 있으며, 따라서 보통 수준의 소득으로 살아가거나 사회생활로 인해 가정에 소홀할 수 있는 직업소유자에게 있어서 그러한 갈등은 단순히 오히려 긍정적인 여가 경험을 유발하는 것일 수 있다.

연구문제에 해당되는 여가경험의 차원별 해석외에도, <표 4>의 결과는 여가경험의 4가지 차원에 대한 두 가지 갈등의 예언구조가 확연히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4가지 여가경험에 대한 사건갈등의 예언력 중 해방감, 규범일탈 및 조화추구에 비하여 적극적 행위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저항 경험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크다는 사실은 사건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가 생길 때, 저항경험의 여가활동을 통하여 이를 치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반면, 문화갈등은 불특정 다수로 인한 것이나 혹은 단기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극복 불가능한 사회체계의 문제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이런 경우 오히려 회피적이거나 소극적 대응(즉, 해방감, 규범일탈)을 더 많이 추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 해석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사건갈등을 겪더라도 개인적 특성에 따라 추구하는 여가 경험의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몇 가지 조건들은 사건갈등과 여가경험의 차원별 관계 패턴을 다르게 만들고 있다. 예컨대 가부장적 사건갈등을 겪더라도 가장 소극적인 의미인 해방감의 여가 경험만으로는 그 상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사건갈등은 적

극적인 반발 경험인 저항이라는 여가행동에는 유발하는 경향 역시 개인적 특성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다소 추상적인 가부장적 문화갈등의 예언구조는 사건갈등에 비해 더 명료한 편이다. 문화갈등은 다양한 여가 경험 차원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유의하지만 낮은 수준의 설명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문화갈등은 겪을수록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반발의 여가 경험에 해당되는 해방감, 규범일탈 및 저항추구의 여가활동은 낮지만 일관되게 추구하는 경향을 유도함과 동시에, 그러한 갈등을 조화롭게 극복하려는 긍정적 경험의 추구 경향으로도 이어진다. 이처럼 본 연구는 두 가지 종류의 가부장적 갈등 경험이 한국의 일반적인 여성들로 하여금 어떤 여가 경험을 추구하게 하는지, 그리고 두가지 갈등은 각각 어떤 다른 예언구조를 지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완벽하고 체계적인 논리적 이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향은 향후 연구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여성의 권리와 여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흐름과 달리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했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탐색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여성의 여가 경험이 가부장적 갈등 경험과 관련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들이 지각하는 가부장적 갈등 경험이 최소한 사건갈등과 문화갈등으로 구분된다는 사실과 이런 갈등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여가 경험의 심리적 차원이 다시 4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진다는 결과도 중요한 이론적 시사점을 가진다. 이러한 가부장적 갈등과 여성의 여가경험에 대한 구조 탐색은 향후 여성 여가 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유용한 변수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이와 관련된 정책적 근거나 개념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개념이 여가 마케팅의 시장세분화 근거나 혹은 마케팅 전략의 전술을 수립하는데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두 가지 가부장적 갈등이 여성들로 하여금 다양한 여가 경험을 추구하게 하는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결과는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의 방향이나 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다양한 여가경험의 차원들은 최소한 여성들이 겪는 가부장적 사건갈등과 문화갈등에 의해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것의 기제(mechanism)나 조건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사건갈등과 문화갈등이 여가경험의 의미추구에 미치는 영향과 기제가 왜, 어떻게 다른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인구통계변수들의 구체적인 조건들에 따라 두 가지 갈등의 영향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왜 그런 현상이 도출되는지에 대한 검증적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다.

물론 인내심이나 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새로운 조절변수로 고려할 수도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는 여성의 여가경험을 가부장적 사회문화의 측면에서 조망한 탐색적 수준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 비교적 풍부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탐색적 수준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가부장적 갈등과 여가경험의 심리적 차원의 측정이 지닌 타당도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질적 연구인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측정문항을 구성하기는 했으나 임의적인 수준을 완전히 극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런 한계는 이들 개념에 대한 향후 반복적인 연구가 축적된다면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는 가부장적 갈등과 4가지 여가 경험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분히 사후 해석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문화갈등에 비하여 사건갈등이 저항과 같은 적극적인 반발경험을 더 많이 설명하는 현상을 사건갈등이 분명한 상대가 있는 개인적인 상처이기 때문이라는 논의는 논리적으로 그럴 듯하지만 기존의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조절변수로 고려한 인구통계적 특성의 효과에 대한 논의도 동일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셋째, 개인차 변수로서 인구통계변수들을 고려한 것 역시 탐색적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뿐 분명한 이론적 근거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오히려 다양한 심리적 변수들, 예컨대, 통제소재, 귀인경향성, 정서안정성, 자극역치 수준, 자기오락화 능력, 자기존중감이나 여가정체성 같은 심리적 구성개념들이야말로 직접적인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다. 가부장적 갈등과 여가경험의 관계에 대한 이들 변수의 조절효과 분석은 향후 연구를 위한 주제로 남겨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1000명이 넘는 전국의 성인여성을 지역할당표집법에 근거하여 조사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였고, 가부장적 사회문화와 여성의 여가 문제를 연결 지은 초기의 탐색 연구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시도가 향후 우리 사회의 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고동우 · 홍경완 · 문상정 · 오송대(2010). 여성의 여가 경험: 탈출인가 저항인가?. 『호텔 관광연구』, 12(1), 16-35.
- 김사현(1997). 우리나라 여가문화의 원형 연구. 『관광학연구』, 20(2), 193-207.
- 문숙재 · 윤소영 · 차경옥 · 천혜정(2005). 『여가문화와 가족』. 서울: 신정.
- 정민영(2001). 중년 남녀의 여가활동 유형과 효과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0, 227-240.
- Aitchison, C. C.(2003). *Gender and Leisure: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London, UK: Routledge Publishing.
- Auster, C. J.(2001). Transcending potential antecedent leisure constraints: The case of women motorcycle operator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3, 272-298.
- Bialeschki, M. D., & Henderson K. A.(1986). Leisure in the common world of women. *Leisure Studies*, 5, 299-308.
- Csikszentmihalyi, M.(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Y: Harper Perennial.
- Freysinger, V., & Flannary, D.(1992). Women's leisure: Affiliation, self-determination, empowerment & resistance? *Loisir et Société*, 15, 303-322.
- Green, F.(1998). Women doing friendship: An analysis of women's leisure as a site of identity construction, empowerment and resistance. *Leisure Studies*, 17, 171-185.
- Gunter, B., & Gunter, N.(1980). Leisure styles: A conceptual framework for modern leisure. *The Sociological Quarterly*, 21, 361-374.
- Harrington, M., Dawson, D., & Bolla, P.(1992). Objective and subjective constraints on women's enjoyment of leisure. *Loisir et Société*, 15, 203-222.
- Henderson, K. A.(1983) The motivation of men and women in volunteering. *The Journal of Volunteer Administration*, 1(3), 20-29.
- Henderson, K. A., & Bialeschki, M. D.(1991). A sense of entitlement to leisure as constraint and empowerment for women. *Leisure Sciences*, 12, 51-65.
- Henderson, K. A., Bialeschki, M. D., Shaw, A. M., & Freysinger, V. J.(1989). *A leisure of one's own: A feminist perspective on women's leisure*.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 Iso-Ahola, S. E.(1980).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 Dubuque, Iowa: Wm. C. Brown.
- Kelly, J. R.(1996). *Leisure*, 3rd edition. N.J.: Prentice-Hall.
- Mannell, R. C., & Kleiber, D. A.(1997). *A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PA: Venture.
- Neulinger, J.(1974). *The psychology of leisure*.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_\_\_\_\_ (1981). *To leisure: An introduction*, Boston: Allyn and Bacon Inc.
- Parry, D. A.(2005). Women's leisure as resistance to prenatalist ideolog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7(2), 133-151.
- Samdahl, D.(1988). A symbolic interactionist model of leisure: theory and empirical support. *Leisure Sciences*, 10(1), 27-39.
- Shaw, S. M.(1985). Gender and leisure: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leisure tim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7(4), 266-282.
- \_\_\_\_\_ (1994). Gender, leisure, and constraint: Towards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women's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 8-22.
- \_\_\_\_\_ (2001). Conceptualizing resistance: Women's leisure as political practi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3, 186-201.
- Wearing, B.(1990). Beyond the ideology of motherhood and infertility: Viewing motherhood through the lens of infertility.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Sociology*, 26, 36-58.
- \_\_\_\_\_ (1995). Leisure and resistance in an aging society. *Leisure Studies*, 14, 263-279.
- Wearing, B., Wearing, S., & Kelly, K.(1994). Adolescent women, identity and smoking: Leisure experience as resistance.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16, 627-642.

2010년 4월 9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0년 5월 20일 1차심사완료

2010년 6월 9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0년 6월 13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畢